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모습, 코로나19 격리병동 근무 간호사의 일상을 담은 ‘하루:병원에 사는 사람들’, 재미있는 소재로 관심을 끄는 서울 아산병원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왼쪽부터 시계방향)



질환 정보·의료진 일상까지…유튜브로 소통

현재 콘텐츠 1933편…총조회수 5600만 달해 ‘하루:병원에 사는 사람들’ ‘그것이 알고싶다’ 등 병원 구성원들의 모습·시의성 있는 주제 다뤄 ‘전문성 높은 콘텐츠…의료진도 제작에 적극’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노력한 만큼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레벌D보호구를 입고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화면에 흐른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그들의 일상과 애환이 8분 남짓한 영상을 통해 오롯이 전해진다. 얼핏 ‘지상파나 케이블TV 다큐의 장면인가’ 싶지만 사실은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난 콘텐츠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유튜브 채널 운영 (2021.6.16 현재)				
병원	영상수	조회수	구독자(명)	개설(년도)
서울아산병원	1933	5591만8155	15.7만	2009
신촌세브란스병원	1001	4460만987	23.6만	2010
서울대학교병원	648	892만1888	5.94만	2012
삼성서울병원	767	841만4431	5.88만	2011
고려대학교의료원	1455	703만2498	3.45만	2013
건국대학교병원	308	332만8749	2.86만	2016
서울성모병원	357	301만7795	1.53만	20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65	231만2052	2.61만	2012
한림대학교성심병원	376	200만2709	1.51만	2014
강북삼성병원	254	178만4404	2.3만	2017

●2009년 채널 개설, 총조회수 1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2년여 동안 병원 유튜브 채널은 콘텐츠 양이나 조회수, 구독자 모두 빠르게 증가했다. 그중 주목할 성장세를 보인 곳이 서울아산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은 2009년 4월, 현재 총 1933편의 콘텐츠를 업로드해 전체조회수가 5591만8155(6월16일 현재)에 달한다. 국내병원 중 단연 1위다. 구독자도 15만7000여 명으로 지난해 유튜브 실버버튼(구독자 10만 명 돌파 시 수여)을 받았다. 조회수나 구독자면에서 사실상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양강 체제’다.

서울아산병원의 유튜브 채널은 꽤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격리병동 간호사의 이야기는 ‘하루:병원에 사는 사람들’에 올라온 콘텐츠다. 질환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닌,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시리즈다.

‘암행어사:암환자와 동행하는 의사들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암질환에 대해 암병동 의사들이 쉽고 편하게 알려주는 영상물이다.

‘그것이 알고싶다(DOC)’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시의성있는 주제를 다루는 기획이다. ‘수능 전날 일찍 잘까, 말까’,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현장자문의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입원생활’ 등 재미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밖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플러스’와 건강강좌 코너가 있고, 별도로 병원소식을 담은 카드 뉴스도

제작한다.

●“병원의 숨은 따스한 이야기도 전달”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콘텐츠는 1~2주에 한 편씩 업로드한다. 자체제작이어서 비용부담은 크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문프로덕션이 아니다 보니 기획과 섭외, 촬영, 그리고 편집과 그래픽의 후반작업까지 짧게는 1~2주,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린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의 장점에 대해 “우선 정확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흔히 병원을 삭막하고 어려운 공간으로 느끼는데 서울아산병원이 전국에서 온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간으로 그 속에 따뜻한 이야기도 숨어 있다는 점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유튜브 콘텐츠는 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대한 현장 의료진의 시각은 꽤 호의적이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울아산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좀 보수적인 면도 있었지만, 요즘은 의료진이나 진료과에서 먼저 콘텐츠 제작 관련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다고 말할 때 의료진도 뿌듯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진료과의 질환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중이다. 우선, 심장병원과 함께 심장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중앙대의료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중앙대병원·광명병원 시스템 통합…진료정보 공유



중앙대학교의료원은 15일 의료 IT 전문기업 평화이즈와 차세대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사진했다).

새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은 1500병상 규모의 중앙대의료원 산하 두 병원, 중앙대학교병원과 광명병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진료 정보를 공유하여 진료, 교육, 연구 면에서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병원 업무도 표준화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은 내년 3월 개원하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먼저 도입하고, 이어 5월에 중앙대학교병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대의료원과 평화이즈는 앞으로 스마트병원 환경을 조성해 보건으로 국제 과제를 주도하고,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홍창권 중앙대의료원 의료원장은 “산하 두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 가능한 최첨단 종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 리모델링 오픈

다학제 협진 체계 구축…국내 최초 현미경 내시경 도입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은 소화기병센터 리모델링을 마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소화기병센터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 이사장인 조주영 센터장을 비롯해 치료내시경 전문 김성환 교수, 대장외과 명의 한준길 교수 등 국내 최고의 소화기 교수들이 합류했다.

확장 오픈한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는 별관 1층, 2층에 6개의 내시경 검사실과 9개의 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소화기병실도 운영한다. 소화기내과와 외과를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고 질환별 맞춤 치료를 한다. 소화기병센터,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다학제 협진 체계로 소화기질환의 진단부터 내시경적 치료와 수술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최초로 첨단 장비인 현미경 내시경을 도입해 이전 내시경에서는 관찰하지 못했던 점막 표면과 점막하층의 조직을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강남차병원은 6월 말에 유방암과 갑상선암을 중점 치료하는 외과센터도 오픈해 여성의 전 생애 주기를 케어하는 여성병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병원 유튜브, 시의성 있는 테마 공략 대세

고려대의료원 백신접종 영상 133만 회 넘어

병원의 유튜브 콘텐츠는 요즘 사람들이 궁금해 할 시의성 있는 테마를 발빠르게 다루는 것이 추세다.

고려대의료원의 경우 현재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콘텐츠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주의사항 3가지’(사진



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출연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 무려 133만 회를 넘었다. 주제도 주제지만, 코로나19 방역전문가로 친숙한 김우주 고려

고려대 의료원은 이밖에 의과대학생들의 일상과 색다른 면모를 다룬 ‘의대탐구’ 시리즈로도 주목을 받았다.

명지병원은 17일 시즌2가 시작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맞춰 의사들이 드라마 감상 가이드를 제공하는 ‘닥터썰전’ 콘텐츠를 16일 업로드했다. ‘슬의생 5인방은 왜 모두 싱글’, ‘현실 의사가 잡아낸 욕의 티’ 등 재미있는 소재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7일(목) 음력: 5월 8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하는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을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친구들과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의 날씨				17일(목)	
서울	20/30	인천	20/30	춘천	30/30
 19 25	 19 23	 16 25			
강릉	30/30	대전	30/30	전주	20/30
 16 22	 18 25	 18 26			
광주	20/30	대구	30/30	부산	30/30
 19 26	 18 24	 19 23			
창원	30/30	제주	3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9 24	 20 24	 20 24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0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세호	사업총괄 김상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광고국장 이송욱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